

돌프의 쌩쌩정보

단오와 민속놀이

글.
성승규 작가
돌프의 그림여행 일러스트레이터



첫번째로 소개할 민속놀이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놀이입니다.
이를 통해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고
나쁜 귀신도 몰아낼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죠.
창포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 풀로,
부리는 약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단오는 일년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졌고
다양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맞이 전의 초하의 계절로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죠.



두번째, 그네뛰기 입니다

그네뛰기는 옛날 여자들이 바깥 나들이를
쉽게 할수있던 시절, 단오 때 탈수있는 놀이로
대개 마을에 있는 커다란 나무의 가지에
동아줄을 메고 밧침을 대어 만든 것입니다
그네뛰기를 하면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세번째, 으랏차차 씨름입니다
 단옷날에 남자들은 씨름을 즐겼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과 서로 힘을 자랑하며
 씨름판을 벌였죠
 씨름은 4세기에 만들어진 고구려의
 씨름무덤(각저총)에 씨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서 적어도 1500년전부터
 씨름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즐겼습니다

네번째, 널뛰기입니다
 음력 정초, 8월 한가위 등
 큰 명절 때 부녀자들이 즐기는 놀이로
 도판희 라고도 합니다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긴 민속 널뛰기는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답고 심신을 연마하는 효과가
 있어 여성놀이의 으뜸으로 전통 민속놀이 보존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면무용이라 불리는 탈춤이 있습니다
 검무, 처용무 등이 궁중무용으로 전해지고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민속무용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단오 때는 줄다리기, 윷놀이,
 화초놀이, 농악, 줄다리기 등과
 쑥떡 등 다양한 음식문화 축제가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앞두고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뽕뽕한 단오 축제를 전해드립니다